

60년대 이후 패션 트랜드를 중심으로 본 패션모델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 광 숙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I. 서 론

트랜드는 사전적으로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을 뜻한다. 패션용어로 쓰일 경우 패션트랜드는 광의적으로 의복의 경향, 혹은 다음시즌의 패션경향을 말한다. 패션모델은 옷을 입어 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패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신체미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모델의 이미지가 대두되었다 사라지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여 그 시대에 맞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의해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패션 트랜드와 패션모델 이미지는 동일한 기의를 지닌 사회문화적 기표이기에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트랜드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고 상호 어떠한 연결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으며, 각 10년 단위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패션트랜드와 패션모델은 국내외 경우는 제외하고 세계적인 트랜드와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와 함께 패션잡지, 패션 정보지, 패션 서적,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패션트랜드와 패션모델을 살펴보았으며, 이때 트랜드는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각 10년대를 대표할 만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트랜드를 선정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시대별로 패션 트랜드에 따라 트랜드 이미지와 상호연관성이 있으면서, 그 시기에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모델을 선정하여 함께 논의함으로 패션트랜드와 패션모델 이미지가 상호 호응됨을 밝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II. 패션트랜드와 패션모델

1. 패션트랜드

트랜드(trend)의 일반적인 의미는 경향(傾向), 변동(變動), 추세(抽稅)를 말한다. 패션 트랜드란 ‘fashion’과 ‘trend’ 두 단어가 연결된 합성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패션 경향’을 뜻하며, 패션이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 패션이 변화하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을 뜻한다. 다시 말해,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은 물론 인간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들이 용해되어 인간 생활을 주도해 나가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는 패션 현상을 패션 트랜드라고 한다.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주도적인 트랜드가 나타나지만, 패션 트랜드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대중들의 욕구와 의식상태를 다양한 의복착장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트랜드에 앞선 주도적인 역할로서 기타 트랜드를 전체적인 트랜드적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있다

2. 패션모델

역사 속에서 여성의 신체는 시대에 따른 미의 이상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 이상형을 창조해 왔다. 모델(model)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표준, 기준, 모형 또는 화가, 조각가”등의 작품의 주제가 되는 사람, 미술가의 작품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특히 젊은 여성)모델, 패션쇼, 텔레비전 광고, 전신 사진 따위를 위한 모델, 그대로 닮은 것으로 옷을 입어 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불어로는 ‘모델’이 ‘의복’ 그 자체를 의미한다. 모델은 의상에 생명을 준다고 하여 모델에 의한 옷의 전시방법이 시작됨에 따라 “마네킹에 의한 고정된 모습만 보여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옷에 생명력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상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모델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육체를 구조화하는 것에 의해서 옷을 입는 기술을 요약한 것으로 이러한 기술을 통해 몸은 “미”나 “패션” 유행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다.

III. 패션트랜드와 패션모델 이미지

1. 1960년대

60년대는 하이패션의 시대가 가고 언더그라운드 중심의 틴에이저 영 패션의 시대가 도래한다. 엘리트 위주의 예술에 싫증을 느끼면서 대중의 감각을 중시한 자유로움과 다양함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미술의 생성은 의상에 접목되어 옵아트룩, 팝 아트 룩, 몬드리안 룩을 탄생시켰다. 반면에 소녀 같은 돌리(dolly)스타일로 이노센트(innocent)룩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앙드레 쿠레주와 파코 라반은 60년대 후반 스페이스룩을 탄생시켰다. 60년대는 미니스커트가 가장 대표적인 패션으로 비

장식성, 단색, 최소형태 등 극명하게 모더니티(modernity)를 표출하는 표현양식을 취하는 역사상 가장 짙은 치마이다.

이상의 트랜드와 상호 호응하는 모델의 이미지와 그 대표적인 모델은 1) 이노센트 돌리 이미지, 진 쉬립تون, 2) 쎈슈얼 이미지, 세리아 하몬드(Celia Hammond), 3) 개성적 마스크의 아트적 이미지, 페기모펫(Peggy Moffitt), 4) 미성숙한 보이쉬(boyish) 이미지, 트위기(Twiggy) 등으로 나타난다.

2. 1970년대

70년대는 엘레강스룩으로 바뀌어 미니멀룩, 레이어룩, 레드 룩, 에스닉룩, 빅룩, 유니섹스룩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과 엑티브 레져웨어 등의 유행도 주목할 만하다. 70년대 후반 여성의 어깨를 과도 넓히거나 드롭(drop)시킨 소매에 레이어드(layed) 스타일을 가미하여 전체적으로 헐렁한 빅룩이 유행되어 80년 전반 까지 크게 유행하게 된다. 글램 락(glam rock)에 의한 글래머러스룩(glamorous look)과 디스코(disco) 패션이 유행되며, 특히 스트레치성 신소재에 의한 바디 스토킹의 등의 스키타이트 스판덱스(skin tight spandex)는 스포츠웨어에 사용될 뿐 아니라 디스코 패션에 이용되어 글래머러스 스타일에 큰 역할을 한다.

이상의 트랜드와 상호 호응하는 모델의 이미지와 그 대표적인 모델은 1) 자연스러움과 현명한 이미지, 로伦 휴튼(Larun Hutton), 2) 엑조틱한 블랙(black)미의 이미지, 이만(Imman), 3) 우아한 관능미의 이미지, 베루시카(Veruschka), 4) 쎈슈얼 & 클레며 이미지, 제리 홀(Jerry Hall) 등으로 나타난다.

3. 1980년대

80년대 패션은 성(sex), 파우어 (power), 신분(status)이 그 전형(全形)이라 할 수 있다. 제페니즈룩, 애콜로지룩, 몸에 피트하게 밀착되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굴곡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보디컨셔스룩(body conscious look), 케쥬얼이 보편화되고 유니섹스 모드가 유행함에 따라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킨 앤드로지너스룩(androgynous)이 등이 유행하였다. 건강 열풍과 함께 매끄럽고 탄력있는 몸매의 건강미가 새로운 이상미로 등장하였다. 80년대에는 여성의 몸매에 더 많은 근육과 건강함이 나타났다. 이상의 트랜드와 상호 호응하는 모델의 이미지와 그 대표적인 모델은 1) 파워풀(powerful)한 중성성의 이미지,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 2) 우아하고 귀족적인 이미지, 이네스 드 라 프레상쥬(In'nes de la Fressange), 3) 건강미와 쎈슈얼의 이미지, 크리스티 블링클리(Christie Brinkley), 4) 섹시함과 현명함의 이미지, 슈퍼모델들(super model)등으로 나타난다.

4. 1990년대 - 현재

90년대를 흔히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시대로 이야기하는데 20세기를 회고하는 지속적인 복고풍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자연주의, 민족풍, 미니멀리즘, 시스루룩 등이 유행하고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력이 컸다. 90년대 전반 (90 -95년)의 패션은 자연주의 성향과 복고무드로 에콜로지(ecology), 에스닉(ethnic), 그런지(grunge), 네오히피(neo-hippie), 히스토리시즘(historicism), 스트리트(street), 복고풍(retro) 패션 등이 유행하였다. 90년대 패션의 주제는 자연주의, 세계주의, 미래주의, 복고주의 등으로 종래의 상식적인 디자인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스타일이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교류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상의 트랜드와 상호호응하는 모델의 이미지와 그 대표적인 모델은 1)적극적 자신감과 글래머 섹슈얼 이미지, 클라우디아 쉬퍼(Claudia Schiffer), 2)기품있는 우아함의 이미지, 크리스티 타닝턴(Christy Turlington), 3) 중성적과 양성적 이미지, 스텔라 텐던트(Stella Tennant), 4)트위기 스타일의 미성숙하고 빈약한 이미지, 케이드 모스(Kate Moss), 5) 뉴 글래머 스타일의 이미지, 지젤 번천, 6)유일한 개성미의 새로운 이미지, 앰버 발레타(Amber Valletta), 7)이국적 미의 이미지, 테본 아오끼(Devon Aoki), 8)그 밖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 등으로 나타난다.

IV. 결 론

동시대의 욕구를 패션이라는 통로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패션트랜드와 패션모델은 동일한 하나의 정신과 욕구가 내재하며, 다만 그 표현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유사한 기호들이다. 연구결과 패션트랜드에 따른 패션모델 이미지는 서로 상호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트랜드와 패션모델 이미지는 상호간에 맞물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패션트랜드에 따라 모델의 이미지가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60년대부터 현대까지 흐름을 파악하면서 패션트랜드와 패션모델 이미지의 상호연관성을 밝혔으므로 향후 패션모델의 이미지 분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모델이라는 기호에 의한 또 다른 코드의 관점에서 패션을 파악하여, 이미지 중심적인 현대패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